

2007 겨울호

선다섯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소아암 환아들과 함께 걸어온 2007년! 웃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2008년을 기대해 봅니다.

<http://www.kclf.org>

2007년 한 해도 행복했습니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 돼지띠의 해를 보내고

2008년 무자년(戊子年) 쥐띠의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겨운 여건 속에도 완치의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투병하고 있는 환아와 그 가족들,

매월 정기적인 현금기부로, 헌혈로, 정성이 담긴 물품기부로,

시간과 능력을 나누는 자원봉사로 함께 뛰어 준 후원자님들,

기업의 이윤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경영자분들,

그리고 힘겨운 치료과정을 이기고 완치의 메달을 목에 건 완치자들과 그 가족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송 상 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여러분의 2008년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소망들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은,

지금도 병원과 가정, 그리고 침터에서 소아암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이

2008년에는 완치의 기쁨 속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큰 소망과 큰 격려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소망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소망을 하나로 모아,

2008년도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보다 많은 환아와 가족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새해 모두 행복하세요.

아버지의 마음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청승맞은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러 일환이와 아내가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정류소 출구 먼발치에 서서 잘 다녀오라는 저의 손길을 일환이가 보았나 봅니다. 차 속에서 보일 듯 말듯 흐드는 일환이의 손짓에 마음이 아립니다.

일환이가 병원에서 뇌종양을 판정받은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책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까운 개인병원을 찾아 처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환이가 너무 힘들어서 보건실에 누워있다는 담임선생님의 연락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종합검사를 받았습시다.

참 무지한 부모입니다.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1차, 2차, 3차 ... 이제 11차가 시작됩니다. 겨우 1년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역겹의 세월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일환이는 어른 못지 않은 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웃음을 지으며 잘 다녀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로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운동, 책읽기, 교회가기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빨리 치료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참 열심히 살았답니다.

하지만 병원 일정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예상보다 치료 일정이 길어졌고 항암치료 횟수를 거듭하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기약만 먹어도 입맛이 떨어지는데 하물며 몸 속의 세포를 다 죽이는 약을 투여 받는데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일환이는 치열하게 먹어댔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에 우리 가족들도 꼭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저 어떻게 살아요? 친구도 없고, 다시 옛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너무 두려워요.”

라는 내용의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창 팔팔하게 뛰어놀 나이에 또래 친구와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거 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일정에 따라 바빠 움직이고 주말이 되어도 학원이나 독서실로 다니다 보니 그 일정과 동떨어진 일환이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노릇이겠지요. 그러다보니 일환이는 주말예배 시간은 빼놓지 않고 다닙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저도 주말에는 일환이와 함께 예배를 보러갑니다. 아직은 신앙심으로가 아니라 이것만이라도 일환이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저도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울에 가 있을 때는 아내가 병원근처 교회를 함께 갑니다. 결국 가족이 일환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겠지요.

버스가 떠난 지 한참 되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 감춰두었던 울음이 팬스레 터져 나옵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비와 함께 온 얼굴을 적십니다, 저 멀리 멀어져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일환이가 이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 내도록 빌고 또 빕니다.

일환이는 2006년 11월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일환이가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아버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식사관리

김혜진
여의도 성모병원 영양사

면역력이 감소된 조혈모세포이식 전·후 환자들은 음식섭취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은 익힌 상태로 섭취하고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식 전 단계부터 이식 후 2년까지 환자를 위한 식사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① 이식 전

이식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는 영양상태 평가를 위해 영양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음식의 기호도를 포함하는 식사력 조사는 이식 후 음식섭취 시 참고 자료가 되므로 환자와 보호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이식 전 처치의 영향으로 면역력이 감소되므로 과일과 채소를 제한하며, 경구섭취가 불충분할 때 중심정맥영양을 이용하여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이식 직후

이식 전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심한 구강손상과 식욕부진은 보통 한달 정도 계속되어 경구섭취가 감소되고 그에 따른 중심정맥영양을 시작합니다. 경구섭취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식으로 인한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식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단계 : 대변량이 2~3일 이상 하루 500g 이하가 될 때까지 경구섭취는 금하고 장을 쉬도록 합니다. 영양은 중심정맥영양으로 공급합니다.
- ▶ 2단계 : 배설물 양이 많지 않도록 하는 음료 및 유당이 적은 음료를 소량씩 자주 공급합니다. 증세가 나아지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2단계에서도 영양은 중심정맥영양으로 충족시킵니다.
- ▶ 3단계 : 배설물 양이 많지 않도록 하는 음식, 유당이 적은 음식, 저지방(약 30g)의 고탄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음식은 천천히 소량으로 자주 먹도록 합니다. 영양 보충이 필요할 경우 중심정맥영양을 계속 합니다.
- ▶ 4단계 : 일반식사로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식사제한은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경구섭취가 영양필요량에 맞게 충분해지면 중심정맥영양을 중지합니다.

③ 이식 이후

임상적 수치가 적절해지면 아주 조심해서 깨끗이 씻은 생과일과 생야채를 다시 섭취합니다. 퇴원 후 경구섭취만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자는 환자의 영양필요량과 그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퇴원 후 4주까지 섭취한 음식을 기록하여 외래 진료 시 영양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 후 3~12개월 동안 체중감소가 나타나는데, 이식편대숙주반응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1년 정도면 예전 체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④ 이식 후 4개월까지 (면역기능이 미약한 시기)

- ① 생과일, 생야채, 익히지 않은 생선, 날조개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조개류는 익힌 것도 섭취하면 안됩니다.
- ② 통조림 형태 이외의 식품은 반드시 냉장, 냉동 보관합니다.
- ③ 조리된 식품은 상온 또는 위험온도(4~60℃)에서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④ 도마는 프라스틱 도마나 스테인레스 용기를 사용합니다.
- ⑤ 모든 식품은 사용 전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⑥ 남은 식품을 가열할 때는 우선 끓이고, 완전히 저어준 후 5분 정도 더 끓입니다.
(1인 분량씩 준비하여 남기지 않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 ⑦ 식품은 개별 포장의 것을 사용하고, 여러 번 다룸으로 생길 수 있는 오염의 기회를 줄입니다.
- ⑧ 종합비타민과 무기질을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합니다.
- ⑨ 반드시 물은 끓여서 마시도록 합니다.

⑤ 이식 후 4개월에서 2년까지

- ① 익히지 않은 생선, 굴, 대합, 조개 등은 피합니다. (완전히 익힌 새우나 바닷가재는 가능합니다)
- ② 익히지 않은 고기류는 피하며, 돼지고기와 햄버거는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합니다.
- ③ 유효기간은 확인하고 곰팡이나 이물질에 의한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④ 식기는 청결히 하고 상온이나 위험온도에 식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⑤ 종합비타민과 무기질을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합니다.

| 제한 식품

식품군	제한 식품
육류 및 난류	익히지 않은 고기, 생선, 패류, 기름류, 계란, 핫도그, 소시지, 베이컨, 훈제연어, 젓갈
우 유 군	저온에서 살균 되지 않은 생우유와 치즈 및 요거트를 포함하는 유제품, 숙성된 치즈, 냉동된 치즈가 함유된 쉐퍼드 드레싱
채 소 군	씻지 않은 생야채
과 일 군	씻지 않은 생과일
음 료	끓이지 않은 물
양 념 류	핫 칠리소스, 후추, 된장, 허브
기 타	생꿀, 건강보조식품



예비 사회복지사, 민우군! 반갑습니다. ^^

마비 증세로 찾아온 병마

2001년 초 왼손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제가 장난치는 줄로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왼발까지 마비되어 절뚝거리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도 예사를 지 않게 여겨 여러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해서 MRI, PET, 혈액검사, 골수검사 등의 많은 검사를 했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당시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느 병원에서도 확실한 진단을 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병명을 알아내지 못해 몸에 좋다고 소문난 약이나 한의원 등 한방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마비 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던 그 시절, 사춘기였던 저는 심하게 방황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친구들이 제 곁을 떠나갔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고생하던 어느 날,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곧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비 증세가 시작됐을 때 이미 내 몸에 작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암이라는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진단 당시 너무나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기에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함 보다는 매일매일 고통과 싸워야했습니다.

고통, 즐거움, 감사...

치료 기간은 짧았지만, 저 역시 쉽지 않은 치료 과정을 거

쳤습니다. 대부분의 환아들이 그러하듯 항암치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머리도 빠지고 계속되는 심한 구토와 피로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횡수를 더해 갈수록 항암제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는지 버틸 만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항암치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방사선 치료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유달리 많은 횡수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1분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옴과 동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지러움과 계속되는 구토증세가 저를 가장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병원생활 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웃음 지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유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온 병원을 돌아다니는 저를 자제시키기 위해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셨지요. 그 간호사 선생님 중 한 분을 좋아했었는데, 옆 자리 친구가 소문을 내는 바람에 창피해 했던 기억도 나네요. ^^

그런 제 밝은 성격이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끈기가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이 없었다면 저는 더욱 힘든 치료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이면에는 외로움도 많았는데 음악이 저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음악 감상뿐 아니라 음반 모으기에도 취미가 생겨 지금까지 모은 음반개수가 300장이나 된답니다.

치료 과정을 떠올리다 보면, 감사드릴 수많은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병원까지 오셔서 용기를 주시던 친척분들, 바쁜 가운데도 병원에 있는 저와 어머니

김민우

1987년 3월 30일생
2002년 1월 뇌종양 진단
2002년 10월 치료종결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학과 1년 재학 중



를 챙겨 주시던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병원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집에 가셔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다음날 또 다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밝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던 어머니... 지금 생각해도 울컥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힘나고, 신나는 2007!!

저는 미래의 의료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한 계기는 역시 치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치료 중 소아암 가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최권호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보면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품게 되었고, 지금의 노력하는 모습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학교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뒤처짐도 없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치료를 받는 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항상 웃고 다닙니다. 제가 웃으면 남들도 웃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더 많은 웃음을 주기 위해 항상 웃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걱정되고, 헤어진 여자 친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시험은 잘 볼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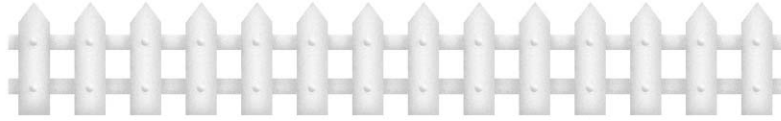
지금 소아암 환아들은 다른 건강한 친구들에 비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어찌 보면 더 나은 우리들을 위한 담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보다 어려운 과정의 치료를 마치고 나면 힘든 치료를 이겨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부심은 남은 날들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멋지게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치료에 집중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원치자가 모이는 자리에서 민우씨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늘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만나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민우씨!! 분명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것입니다. ^^

헌사랑의 집에서는...



전남 우체국 헌사랑의 집

가을 운동회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



지난 10월 3일 청명한 가을하늘아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운동장에서 소아암 어린이 가족 운동회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이 열렸습니다.



SBS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1부 가족 운동회는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족 사랑을 다

지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맛있는 점심식사 후 2부에서는 미술심리 진단검사를 비롯하여 벽화 그리기, 가족티셔츠 만들기, 멋진 나 만들기, 소망풍선 띄우기, 비누방울 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밝은마음미술치료센터, 그리고 더운 날씨속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신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복지사 정옥·소상미〉

대구 우체국 헌사랑의 집

2007 헌사랑 가족 자연체험

지난 9월 8일, 대구 헌사랑의 집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가을맞이 자연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는 푸르름 속에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흠길도 거닐어보고 다양한 신라시대 문화를 접해보고, 경주세계엑스포문화공원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신기한 전시물 관람, 밤에 펼쳐진 경주타워 불꽃쇼를 끝으로 행복한 나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더운 날씨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긴 여정이었음에도 즐겁게 참여해주신 가족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요~^^ 오랜만에

나섰던 가족나들이가 참가한 가족분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소아암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지원해주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부산 우체국 **흔** 사랑의 집

제6회 **희망가득 소망가득 완치대잔치**



2007년의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부산 **흔** 사랑의 집에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힘든 시간을 견뎌낸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

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본 행사에는 많은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하였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치료를 끝낸 스무 명의 어린이들은 메달과 상장을 받으며 여느 때 보다 설레임으로 가득찬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치료를 마친 환아들의 희망 가득한 미소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울산지역 담임교사 대상 소아암 교육

지난 11월과 12월에 걸쳐 울산대학교병원의 다솜병원학교에서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급 담임선생님들을 모시고 환아에 대한 이해와 건강장애아동들의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재단에서는 소아암 환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



다. 소아암이 정말 7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선생님, “학기 초에 이런 강의가 있었다라면 소아암 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아암 교육 ‘학교 속으로 GO GO!’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울산교육청, 울산대학교병원 다솜병원학교 손혜경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 참석하신 많은 담임선생님들과 보호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방문 학습지도 신청하세요~!!

재단에서는 자원봉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환아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낮은 면역력, 거동불편으로 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환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소아암 환아 가족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재단사무국/서울 우체국 **흔** 사랑의 집 ☎ 02) 766-7671(대)
 신촌 우체국 **흔** 사랑의 집 ☎ 02) 363-7671
 부산 우체국 **흔** 사랑의 집 ☎ 051) 244-7677

사랑이 모이는 곳...

▶ 2007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199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새생명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MBC 특별기획 '어린이에게 새생명을'이 지난 12월 1일 방송되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덕분에 소아암 어린이들은 일일모델이 되어 사진촬영을 하고, 슈퍼주니어 오빠들과 함께 맛있는 과자공장에서 과자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거성 박명수 아저씨를 직접 만나 신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ARS와 계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신 마음 따뜻한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뜻 깊은 사업에 써달라며 지원해 주신 롯데그룹(주), 한국암웨이(주), 우정사업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한 가을 나들이



지난 10월 3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의 후원으로 가족들은 즐거운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용산역에서 집결한 가족들은 기차를 타고 외암리 민속마을로 향했습니다. 민속마을에서는 노랑 빨강 알록달록 천연염색 체험,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깔끔했던 시골 밥상을 먹고, 따뜻하고 말랑 말랑한 인절미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유로운 가을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가을여행. 참가하

신 가족분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후원해 주신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삼성SDS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대축제

하나, "1m 1원 마라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어 온 삼성SDS '1m 1원 마라톤'이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번 행사에도 역시 많은 삼성SDS 임직원분들과 소아암 가족들이 참여하여 10Km를 완주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삼성SDS에서는 1,597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꺼이 뛰어주신 삼성SDS 주자 여러분들과 기부에 동참해 주신 마음 따뜻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둘, "예쁜그림 그리기 대회"

9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서는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의 주최로 소아암 아동대상 '컴퓨터로 그리는 예쁜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처음 그림을 그려보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삼성SDS 자원봉사자님들의 자상한 지도 덕분에 모두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힘든 치료로 인해 지쳐있는 소아암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함께 해주신 삼성SDS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소아암 어린이 지원활동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봉사자 여러분들이시지요. 지난 11월 16일 삼성생명 여의도지점의 후원과 지원

봉사로, 우리 아이들은 점핑클레이 액자 만들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사람으로 액자를 예쁘게 꾸미는 아이들은 진짜 눈발에 나와 있는 듯 흥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는 엄마처럼, 어머님들께는 언니 또는 동생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인답니다. 늘 한결같이 아이들을 위해 마음 써 주시는 삼성생명 여의도 지점 봉사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ToysRUs 소아암 어린이 돕기 협약식



세계적인 완구 회사 토이저러스 (ToysRUs)가 12월 8일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영원한 로망이기도 한 토이저러스는 국내에 첫 발을 들이자마자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칩니다. 롯데마트 구로점에 1호점을 오픈하는 토이저러스는 특정 완구 판매 금액의 일부를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 후원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12월 8일 오프행사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토이저러스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신규 소책자 발간



진단명별 소책자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감수하였으며, SBS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책자가 필요한 가족 여러분은 재단 사무국 및 지역별 우체국 헌사랑의 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7 헌사랑 문화체험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간 우정사업본부가 후원하는 2007 헌사랑 문화체험이 전국에서 모인 160여명의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에버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놀이체험,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정겨운 통나무집, 전통 탈 만들기, 교통박물관에서 멋진 자동차 관람까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행사를 후원해 준 우정사업본부와 행사기간 동안 이동이 불편한 친구들과 함께한 대구,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07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감염의 위험이 있는 소아암 어린이에게는 위생적인 주거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항암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 12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기를 기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KRA “아름다운 가족, Love & Life”



재단에서는 KRA 후원으로 ‘아름다운 가족 Love & Life’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암 치료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운 소아

암 어린이 가족들이 직접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선정된 소아암 어린이 가족은 맛있는 식사도 하고, 놀이동산, 공연관람 등의 가족 나들이를 떠나고 스튜디오에서 멋진 가족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해운대 바다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쿠아리움에서 무시무시한 상어와 처음 보는 고기들과의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철이가 아픈 이후로 한 번도 가족모두가 같이 모여서 멀리 간다는 건 꿈도 못 꾸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철이는 처음 보는 이상하게 생긴 고기에 눈을 못 떼 정도로 신기해했습니다. 민철이 누나도 한참 시춘기라 말도 잘 안하고 뭔지 모를 어두운이 얼굴에 있었는데 이날만은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버스 두 번에 지하철 한 번을 타고 가서 조금은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6살이라는 민철이 나이에 맞게 까불기도 하고 해운대 바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도 쌓고 그러다가 파도에 바지를 적시기도 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참여가족의 후기에서 발췌〉

♥ 특별기금 지원 환아 (2007. 9 ~ 2007. 11) ♥

▶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1) 암치료비 및 이식수 수혜자 부담금

- 김 권(급성혼합형백혈병/화순전대병원/광주) : 1,000만원
- 김민형(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 500만원
- 김현충(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 800만원
- 박세진(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부산) : 1,000만원
- 박종원(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 700만원
- 박지원(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경남) : 690만원
- 박찬형(신경모세포종/한양대학교병원/경기) : 1,000만원
- 신선호(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광주) : 1,000만원
- 신유리(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대병원/전남) : 690만원
- 안재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 영송주(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 1,000만원
- 오성미(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종/삼성서울병원/제주) : 800만원
- 오상우(만성골수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부산) : 1,000만원
- 오승현(재생불량성빈혈/세브란스병원/경기) : 1,000만원
- 전주열(판코니빈혈/여의도성모병원/부산) : 690만원
- 정수은(재생불량성빈혈/부산대학교병원/부산) : 690만원
- 정유진(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전남) : 690만원
- 황인우(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전남) : 690만원

2) 재활치료비 지원환아

- 김성현(망막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서울) : 300만원

▶ 삼성SDS ‘1m1원 마라톤’ 기금

- 백기성(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500만원
- 박기웅(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 500만원
- 황동환(뇌종양/서울아산병원/충북) : 5,967,000원

▶ 박성원 기금

- 김지혜(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 500만원

▶ 메릴린치증권 기금

- 전주열(판코니빈혈/여의도성모병원/부산) : 700만원

▶ 우체국 훈시랑 기금 - 각 300만원

- 김도현(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서울)
- 김민형(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 김신형(중증재생불량성빈혈/화순전남대병원/전남)
- 김원철(뇌종양/화순전남대병원/광주)
- 문준형(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제주)
- 박종원(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 박지순(비호지킨림프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 박기성(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서성민(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 송원재(황문근육종/한양대학교병원/서울)
- 송원충(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대구)
- 양다민(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병원/경북)
- 이지희(수모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 토탈소프트뱅크 기금

- 김바림(뇌종양/부산백병원/울산) : 400만원

▶ 차카게살자 기금(드림백도리클럽)

- 박지순(비호지킨림프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 200만원
- 송원재(황문근육종/한양대학교병원/서울) : 300만원
- 이지희(수모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 200만원

▶ 양진의료재단 기금

- 김기홍(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250만원

▶ LG전자 기금

- 송원충(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2,063,440원

▶ 태진인터내셔널 기금 - 각 100만원

- 황동환(신신경교종/서울아산병원/충북)
- 장은지(해장가성유두상종/경북대학교병원/경북)
- 한연우(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경남)

▶ 삼성SDS ‘1m1원 마라톤’ - 원차자 기금

- 이재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울산) : 100만원

▶ 익명 후원자

- 박은혜(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전북) : 매일 50만원

▶ SBS 기금(서울대학교병원 지정기부)

- 고민재(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울산) : 500만원
- 김지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 문현식(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제주) : 500만원
- 박일환(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500만원
- 박정훈(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 1,000만원
- 오해담(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500만원
- 이승훈(비호지킨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대구) : 500만원
- 장권희(간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500만원
- 최민기(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 500만원
- 최민재(골수이형성성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1,000만원
- 한성욱(황문근육종/서울대학교병원/대구) : 500만원

이보다 더 가까울 순 없다.

최 선 희

여의도성모병원 11서병동 수간호사

여의도 성모병원 소아과 병동에 가면 늘 잔 걸음으로 분주하지만, 모두에게 친근함을 잃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올챙이 '송'부터 '울동'까지 다 가능하신 분, 이 분의 꿈과 계획은 온통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 대한 것뿐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최선희 수간호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Q. 선생님, 언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A. 어릴 적 수녀님께서 늘 물으셨어요. '너 커서 수녀 될래?' 어린 마음에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아, 결혼하면서도 수녀님 같이 보일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이유의 첫 자락이 되었네요.

Q. 소아암 어린이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A.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실습하면서,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시 저에게는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은 경이로움이었어요. 아이들은 처음 입원할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도, 금새 건강하게 퇴원했지요. 저는 이런 생동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입사할 때만해도 소아과에 소아암 아이들이 많지 않았는데,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많이 달랐죠. 치료과정은 힘들었고, 입원기간도 길고, 잣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한때는 치료를 받으면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는 게 마음 아파서, 지원하여 부서를 이동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옮겨간 곳이 채혈실이어서 거기서도 아이들을 늘 마주했지요. 그리고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무균실 병동이 생기면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 지 만 14년이 되었습니다.

Q. 선생님, 언제 '아! 정말 좋다!' 라고 느끼세요?

A. 물론,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때지요. 특히, 여러 번 재발해서 남들보다 치료를 더 힘겹게 받고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오는 친구들 보면 너무 반가워요. 치료 마치고 어떤 친구는 저처럼 간호사가 되겠다고 간호대학을 갔어요. 또 프랑스로 유학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임상 병리학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아이들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들이랑 자랑 '아~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느낄 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기들을 데리고 오면 저 정말 행복하겠지요?

Q. 14년,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또 변하려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인데,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A. 부모님들과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인데, 가끔 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치료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의료진 사이에 신뢰,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 선생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필자는 그녀의 개인적인 계획을 물었으나, 그녀는 소아암 어린이 치료환경의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과 동고동락하는 삶 자체였다.)

A. 제 계획은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진단 초기부터 완치까지 편안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을 받으면, 아이들과 부모는 적응할 때까지 공황상태가 됩니다. 이 때 의료진,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치료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욕구들을 각 분야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금 지방에 사는 어린이와 가족들은 힘들게 대도시로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통신수단과 기술들을 도입하여, 특별한 치료 외에는 인근 병원에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Q. 소아암 어린이와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요?

A. 요즘 치료성공률이 70~80%입니다. 치료과정은 힘들지만, 사회에 복귀하여 건강하게 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입원하면 때로는 힘겨운 친구들을 보시게 될텐데, 그 이면에는 또 건강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치료받는 부모님들도 책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나고 건강하게 지내실 때, 치료받는 아이들을 잊지 말고, 격려해 주시는 일이에요. 치료받는 아이들과 가족에게는 여러분들의 한마디 격려가 큰 위로가 된다는 것 아니죠?

情을 나누는 연말연시

2007년, 새해가 시작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약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지 열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세운 계획과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셨나요? 특히 '좋은 일' 해보겠다는 약속, 나누며 살겠다는 약속 잘 지키셨나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 해도,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셨다 해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7년의 마지막 달 12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 모임을 나누세요.

연말 회사 모임, 친구 모임, 동아리 모임 등등. 여러 모임 약속이 있으시지요? 모임에 속한 사람 모두 함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획! 모임에서 모아진 회비의 10% 기부하기에 동참하세요. 모임의 이름으로 회비의 10%를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고,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

▶ 더 나누기

12월 뿐만 아니라 매번 모임이 있을 때 마다 10%씩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임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모임의 나눔 소식을 게재해 드립니다.

▶ 신규 후원 가입

일회적인 나눔이 싫으시다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를 꾸준히 지원하는 '정기후원자'가 되세요.

매월 원하시는 금액만큼 자동이체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소아암 어린이들의 학습 및 정서적 어려움, 혹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치료를 위해 머무는 소아암 어린이 쉼터 운영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후원금 증액

기존 후원자이신 분들은 후원금 증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후원하고 계시는 금액의 2배로 후원금을 늘려 주세요. 2008년 2배로 부자 되실 거예요.

▶ 소문내기

혼자 착한 일 하지 마시고, '나눔'을 소문내세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착한 일을 소문내세요. 그리고 함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세요. "나 착한 일 해요!! 우리 같이 착한 일 해요!!"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 희망을 나눌 당신을 기다립니다!

- ▶ 후원방법 : 아래 계좌번호로 직접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또는 정기자동이체(재단으로 신청)
- ▶ 계좌번호 : 신한은행 394-05-009700
예금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 재단 홈페이지 www.kclf.org "후원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02)766-7671(대)
www.kclf.org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
롯데닷컴의 나눔 이벤트도 계속됩니다.

소아암 교육동화 “코딱지 외계인 무찌르기”

소개의 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소아암... 암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앞으로의 치료과정이 두렵고,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은 왜 먹는 건지, 아픔을 참기 어려운 검사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암이 어떤 것인지, 왜 힘든 치료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알게 되면 치료로 인한 참기 힘든 고통도, 지루한 병원 생활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아픈 아이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과 치료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일곱 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소아암의 치료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코딱지 외계인 무찌르기”는 치료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임희은 사회복지사)

책의 내용

언젠가 지구를 침략할 지 모르는 외계인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매일 실력을 갈고 닦던 일곱 살 개구쟁이 소년은 어느 날 코피가 몇질 않아 병원을 찾았고 백혈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백혈병이 뭘까? 의아해하는 소년에게 의사 선생님은 “쉽게 말해서, 나쁜 외계인이 너의 몸에 침투한 거란다. 아주 고약한 외계인이지”라고 이야기하고, 소년은 자신의 몸으로 쳐들어온 외계인을 “코딱지 외계인”이라 부르며 그날부터 그 외계인을 몸속에서 멀리 튕겨 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골수검사도 “코딱지 외계인”을 튕겨버리기 위해서 견뎌야한다는 것도, 스스로 힘을 내야 “코딱지 외계인”이 약해진다는 것도 잘 아는 소년은 씩씩하게 치료 생활을 해나갑니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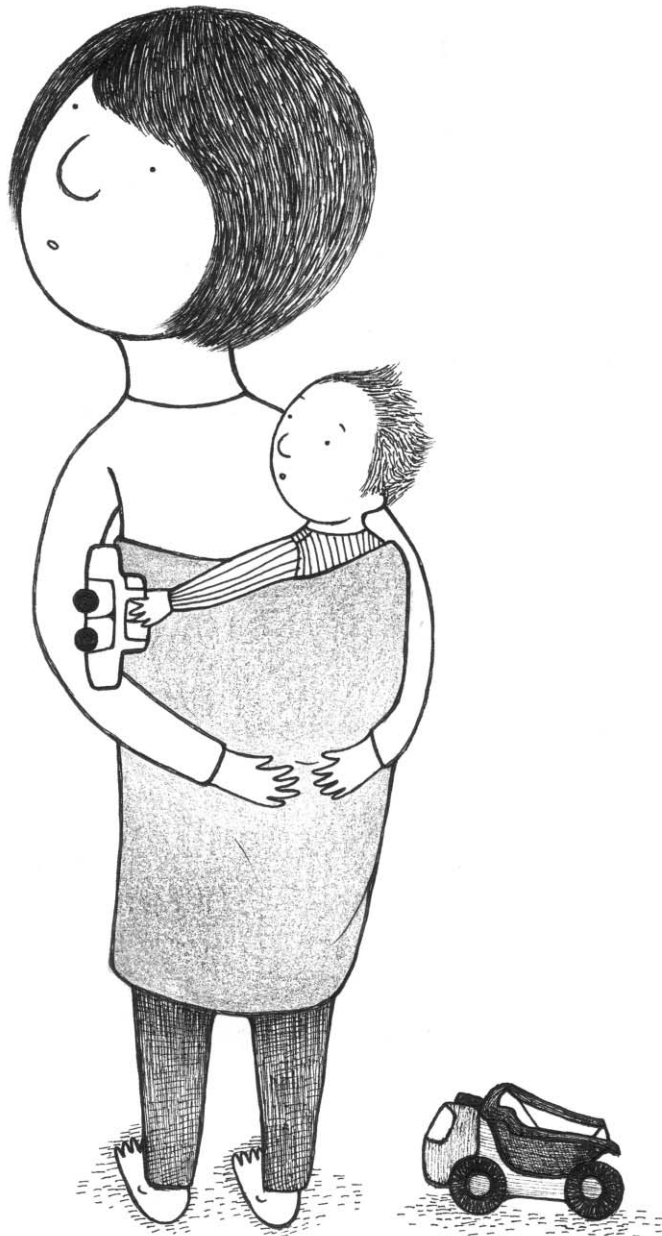
글 이용포 : 강원도 평창 출생. 『문학과 비평사(1990년 여름호)』에 ‘시간의 사용’ 외 12편, 『느티는 아프다』

『태진아 팬클럽 회장님』, 『하늘도 탐낸 아름다운 별, 이휘소』 등

그림 최향란 : 『내 안의 돌고래를 찾아라』, 『사보&카렌더 일러스트』의 다수 現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본 도서는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질병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치료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후원으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비매품으로, 재단으로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재단사무국/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 02)766-7671(대)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 02)363-7671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 053)253-7671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 051)244-7677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 061)375-7671



조카가 감기에 걸려서
우리집에 왔다.
세수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조카만 보고 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조카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허전할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어떡하냐...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7. 9. 1 ~ 2007. 11. 30 / 가나다 순입니다.)

박준석 안선미 이인정 장란희 한경애

▶ 2007년 11월 30일까지 863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후원자 소식

신규 후원자 소개 (2007. 9. 1 ~ 2007. 11. 30 / 가나다 순입니다.)

강덕현 김영종 김중완 서선원 신화인 유민채 임혜란 임희은
장은경 최선혜 하이에어코리아(주)

▶ 2007년 11월 30일까지 1,908분이 만세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후원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001-01-2353-890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농협 : 029-01-176943
우체국 : 012989-01-003327
신한은행 : 310-03-002396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도 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시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대) / E-mail : cancer@kclf.org)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2007. 9 ~ 2007. 11)



김지원 - 1,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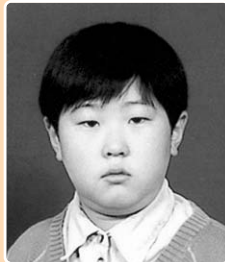
전주열 - 1,300만원
(판코니빈혈/여의도성모병원/부산)



정수은 - 2,000만원
(재생불량성빈혈/부산대학교병원/부산)



오상우 - 2,000만원
(만성골수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부산)



김민식 - 1,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충남)



김현충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박지원 - 2,000만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경남)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7년 11월 30일 현재)

참여후원자 : 3,194명 구좌수 : 17,783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7. 9. 1 ~ 2007. 11. 30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광주은행 CMS 권순국	국민은행 CMS 김선영, 김정희, 나정혜, 송인숙, 양원수, 정다운, 황진영
기업은행 CMS 이지민	농협 CMS 강경아, 강은영, 김재찬, 양윤미, 이우성, 황수미
대구은행 CMS 권숙영	부산은행 CMS 차인하 새마을금고 CMS 정유진
수협 CMS 김정수	신한은행 CMS 김민혁, 김서원, 손연희, 양용웅, 유미
외환은행 CMS 이해진	우리은행 CMS 김민지, 김소정, 김지수, 박지훈, 배성우, 황순남
하나은행 CMS 김성호, 이상민, 임정현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 514-07-0175564	광주은행 200-107-315315	국민은행 031-01-0414-356	기업은행 090-000260-04-022
농협 029-01-170940	대구은행 004-05-179828-001	부산은행 070-01-021379-8	외환은행 141-22-00799-6
우리은행 112-04-112571	우체국 012989-01-003313	제일은행 225-20-385050	신한은행 367-01-192434
하나은행 144-121835-00105	씨티은행 100-59711-251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재단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대)/E-mail: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7. 9. 1 ~ 2007. 11. 30)

경복체신청(100)	고려여행사(50)	권진욱(4)	김명자(13)	김지호(70)
대구지하철공사(53)	대광고회(9)	리바트(33)	명동손국수(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9)		영락교회(11)	(주)넥슨(77)	
채성석(6)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128)	한국철도공사	울산역(22)

*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7년 9월	신영수 100,000	전승식 50,000,000
	하은미 500,000	한수경 1,000,000
10월	임선희 500,000	한경재 300,000
11월	김정희 1,000,000	이성원 1,500,000
	현석균 500,000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1,360,000

▶ 후원물품 (2007. 9. 1 ~ 2007. 11. 30)

63시티 생월잔치	故김민호씨 굴	김세림 과일	문현식씨 굴
빨간모자 생월잔치	삼성생명여의도지점	액자만들기재료, 떡	신한카드 도서
신희영 DVD	이승주 과일	이효인씨 홍시	익명 부식, 음료수, 쌀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 겨울호는  SBS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